

◎ The Analytical Methods of Library Collections.

# 藏書構成評價法

梁 泰 鎮

(國立中央圖書館 司書官)

## 序 言

圖書館의 모든 機能이 收集 所藏된 資料의 活用에 있다고 하면, 藏書構成이야말로 그 圖書館을 評價할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라 할 수 있다.

構成에 均衡을 견지하고 衡平을 깨지 않는 理想的이고 健全한 藏書構成은 資料를 選擇하는 選擇者가 單純한 出版物의 發行情報만을 依支하여 收書政策을 펴나간다면 이는 合理的이고 理想的인 藏書構成을 이룩하여 나간다고 볼 수 없겠다.

두말할 것도 없이 藏書構成의 絕對要件은 圖書館이 지닌 도서관마다의 特性에 起因한다.

即 館種別 地域別에 따라 다른것이다. 本稿에서는 于先 公共圖書館에서의 藏書構成을 主로하여 論하여 보고자 한다.

### 公共圖書館에서의 藏書構成

公共圖書館은 當該 地域社會에 住居하고 있는 讀書能力이 있는 全人口를 對象으로 하여 實際 利用者(Actual Reader)는 勿論 潛在的인 利用者(potential Reader)까지도 考慮하여 藏書를 構成해야 한다.

이용자의 職業, 教育程度, 地域社會의 特性, 農漁村 및 小, 中, 大都市 觀光, 文化, 教育, 商工業都市등에 적절하고도 필요한 程度에 따라 教養, 인포메이션, 娛樂, 趣味, 藝術, 參考圖書等的 藏書를 當然히 갖추어야 한다.

以上과 같은 諸般事項을 고려하여 藏書構成을 펴나간다면 하더라도 자칫하면 偏重된 또는 전혀 不均衡인 藏書構成을 구축하기 쉽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러한 弊를 어느 程度 未然에 방지하고 이의 進단책이라고 할 수 있는 藏書構成 評價法에 대한 理論을 記述하여 보고자 한다.

### 藏書構成의 評價分析

藏書構成의 評價 分析은 所藏 藏書의 量的인 面과 質的인 面으로 나누어 評價 分析을 할 수 있다.

量的인 面이라고 하는 것은 藏書의 主題別 冊數에 따

른 장서구성의 전형적인 量的 評價法이다.

이에 대하여 도서의 質的 評價를 基礎로하는 장서 전체의 評價分析은 기본적으로 質的 方法에 屬한다고 볼 수 있겠다<sup>1)</sup>.

이러한 兩者의 分析評價法은 理論的으로 質과 量을 엄격히 區分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서구성의 평가분석을 하는 前例에 따라 편의상 于先 區分하여 둔다.

대체로 이러한 區分이 우리에게 問題가 되는 것은 量的 方法中에 藏書의 分類別 冊數와 利用者의 分類別 冊數를 比較하는 方法을 들 수 있다.

이 兩者에다 各各의 主題部門 全體에 대한 백분율로 비율을 計算하여 部門別로 장서와 이용자의 비율에 過多를 직접 比較하는 方法을 提起하는 이도 있으나 여기에는 적지않은 무리가 수반되며 다른 모든 部門의 數의 價値如何에 따라 그릇된 結論에 誘導될 可能性이 있다.

이에 대하여 一般的으로 藏書의 活用度數를 測定하기 위하여 藏書의 이용 회전율을 逆으로 하여 藏書構成의 適否를 判斷하는 方法이 있다.

이 方法은 다른 主題部門의 藏書類와 利用圖書類의 大小에 영향을 받는 일이 없이 당해 主題部門만의 藏書數와 利用者數를 比較하기 위하여서는 이部門을 獨立한 藏書로 가상하고 兩者의 關係를 탐구하여 藏書를 評價하는 것이다.

또 이 方法에 따르면 利用者에 대한 장서의 過不足如何가 밝혀질 뿐 아니라 어느 程度 不足함을 평균 회전율로 計算하여서 알 수 있으며 追加 구입을 해야할 필요량도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方法으로 前記한 장서구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이용책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有名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誌 특집호

1) 質的 方法의 하나로 check List를 使用하는 方法이 있다.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 9, 1971 pp. 179 ~207.

에 게재된 이리노이대학 대학원 도서관학과의 본(George S. Born) 교수의 "Library Self-Survey"라는 글 가운데에서도 實際利用과 資料의 比較에 의한 장서평가법이 提案되어 있다<sup>2)</sup>.

곧 "특정 주제 부문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장서"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는 方法이다.

原則적으로는 前記한바와 같은 同一方法이지만 Born 교수의 方法과는 相當히 重要な 차이점이 있다.

Born교수도 前記한 評價法의 批判對象인 백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각 주제별로 利用者와 藏書의 비율을 찾는 것은 같지마는 실제 책수를 도의시하고 백분율의 수치를 가지고 兩者間의 비율을 찾는 點이 다르다.

이것을 公式으로 나타내면  $f = \frac{u}{v}$ 로 이 경우엔 다만 f는 利用者因數(use factor) u=1개 主題部門의 이용 비율 u=1개 주제부문의 장서비율이다.

만일  $f=1.0$ 이면 이용자와 장서가 균형을 얻어 이러한 상태로는 적어도 기대되고 요구될만한 정도이다.

그러나  $f > 1.0$ 이라면 기대될만한 할 뿐이고 또한  $f < 1.0$ 이라면 利用者は 장서가 공급 준비되어 있느니만치 집중적이 아니라고 판정이 된다.

이것은  $u > v$   $v = v$   $u < v$  등 세가지로 나누어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더 仔細하고 同一한  $u > v$ 로 된 數의 部門을 數字的으로 比較해서 兩者의 분리된 數數를 알 수 있는 點이 보다 우수하다.

이러한 方法에 결들여 利用(use)과 關心(interest) 藏書(materials)의 3者を 한데 묶어 研究한 James, H. Wellard의 著書, Book Selection; its principle and practice를 想起하지 않을 수 없다<sup>3)</sup>.

周知하는 바와 같이 Wellard는 同書에서 藏書構成分析評價의 三重比較法을 提案하였다.

곧 도서관 장서의 이용수, 장서수, 독자의 관심도등 三者를 各主題別에 따라 백분율로 계산해서 X란에는 각 주제부문을(DC는 Main Classes를 10으로 하고 Wap les-Tylers의 독서관심 조사분류는 Main classes를 20으로 하였다.)

X란에는 비율을 표시한 座標위에 利用, 藏書, 關心 등 3者に 接線표를 제시하여 이 三者의 접근 또는 분리상태로 장서구성의 적부를 판정하는 方法을 取하였다.

장서 이용을 백분율로 한 점은 Born 교수와 一致한다.

이러한 장서구성의 평가법에 Wellard를 引用한 것은 Born과 Wellard가 다 같이 利用者이외에 관심도를 장서구성평가의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제 이 이상 너무 구체적인 方法論議를 떠나서 장서구성의 평가에 되돌아가서 고찰하고자 한다.

### 利用者の 關心도와 藏書

讀者가 책을 읽을 경우, 그에 앞서서 그책 또는 그主題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관심(positive interest)이 꼭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독서행동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책과 주제에 대해 인상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좀처럼 읽지를 못하든가 또 모처럼 기회를 얻어서 읽기 시작한 책도 다 읽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대다수 독자들의 관심은 적극적인 독서행동에 옮겨지지 않은채 관심도가 식어버린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독서에 대한 관심이 독서행동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시카고대학(Chicago University)의 Douglas Waples 교수 등이 1920~1930년대에 걸쳐 꾸준히 연구한 것은 이 Actual reading과 Reading interesting간의 거리 문제였다. 이 연구의 성과를 독서선택론에 도입한 것이 Wellard였다.

Born 교수가 interest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용을 actual use라고 한것은 아마 이 계보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생각된다. 관심이 藏書에 이르기까지의 첫째 條件은 Accessibility 곧 독자가 요구하는 책에 접근하기 쉬운 점일 것이다.

어떤 方法으로든 책을 入手하지 못하면 아무리 독서에 대한 의욕이 강열하다 하더라도 독서행위에 이르지 못한다.

둘째 조건은 Readability 즉 그 책이 읽기에 알맞아야 한다는 點이다.

내용이 어려워 독자가 읽기에 곤란하거나 기술내용이 너무 난해한 것은 결국 읽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읽기 쉽다고 하여서 readability라고 할 수는 없다.

藏書하기 위하여 선택된 冊이 독자에게 심리적 생리적 요구에 충족되고 유효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리라 readability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점 우리말로 "읽기 쉬운"이란 表現과는 그 의미가 자못 다르다고 하겠다. Accessibility와 Readability를 도서관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본다면 독자가 관심(interest)을 가질만한 도서가 도서관에 얼마나 비치되

2) Born George S. Library Self Survey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 9, 1971 pp. 115~121

3) Wellard, J.H. Book Selection; its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grafton, 1937.

어 있는지 그 興否가 Accessibility의 첫째 조건이다.

이는 곧 장서구성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된다.

또 도서관을 매개로 하여서 관심이 있는 도서를 입수 할 수 있는가 여부도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이다. 卽 도서관이 모든 독자에게 자유롭게 利用될 수 있는가 (Free to All)하는 것이 Accessibility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것이다.

다음 효율적인 목록카드의 활용으로 이용자가 카드 검색에 의해 소장 장서중에서 요망하는 도서를 무난하게 찾을 수 있고 한편 Reference Service를 요하는 독자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것이 Accessibility의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Readability는 상술한 바와 같이 독자의 관심 영역에 속하는 장서가 독자의 독서능력과 취미에 일치된 점이라 하겠다.

이는 개별적 도서에 관한 Book Selection의 과제인 것이다.

**Wellard의 三中比較法**

독서에 대한 관심이 실제 독서행위에 이행하기 위한 조건중에 主要部門은 藏書의 구성과 장서선택에 있다고 할 것이다.

Wellard는 利用(즉 독서), 장서, 관심등 三者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結論에 達한다고 본 것이다.

利用이 되는 冊의 數는 一般的으로 생각하는바와 같이 독서의 원인인 요구의 表現이 아니고 요구에 해당되는 관심이야말로 圖書選擇과 장서구성이 실제의 독서행동에 옮겨질 수 있는 결과라고 보았다.

利用된 圖書가 數值로 나타난 것은 이용자의 關心度全體中 극히 극한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利用은 장서구성의 적정선에 대한 일부분적 表現이라는 입장에서 장서 구성의 유효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간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의 장서구성의 방침으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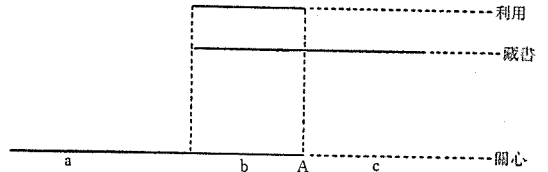
장서구성의 최대기준은 역시 장서구성 이전에 存在한 관심이며 그 구조인 것이다.

물론 利用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서가 관심을 조성한다는 역설적인 面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三者는 상호적인 관계라고 규정지워야 할 것이다.

Wellard의 三中比較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헤아리는 方式이 아니고 利用 장서 관심의 세가지가 상호적이며 독립성과 종속성의 양자로 변하는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는 評價法인 것이다.

多少 無理가 있을지 모르나 이 三者의 관계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a+b$ 는 全體의 關心度이다.



$b+c$ 는 藏書量.

b는 이용도를 의미한다.

相當히 높은 關心度를 나타내는 a는 장서량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 장서중에 어느 부분 c는 그 배경이 되어야 할 충분한 관심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심과 장서가 일치되어 있는 극히 극한된部分 b만이 이용면에 나타나 있다.

장서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利用되지 않는 말하자면 장서구성의 배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장서의 c부분에 어떠한 措置를 加하는 同時에 한편 장서구성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방대한 양의 관심 a에 대응할만한 장서구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三者는 상호 규제하는 관계이므로 기계적으로 어느 부분을 削除 또는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장서구성의 c부분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關心과 利用을 조성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Wellard가 主張한 以上の 三中比較法의 理論도 그의 獨창적인것은 아니고 Wellard의 理論에 多大한 영향을 끼친것은 Walter Hoffman이다.

Hoffman은 Wellard보다 앞서 독서관심을 조사 분석하여 Leserkunde 즉 讀者學이란 것을 확립시켜 놓았다.

이 讀者學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Wellard였다.

사실 Walter Hoffman<sup>4)</sup> 이래로 독일의 독서연구는 그다지 큰 진전이 없었으나 近年 동서독에서 “독자”와 이용자의 요구 “利用者の 關心”등에 대한 研究의 必要性이 재인식되어 그 研究熱이 점차 높아져서 이른바 Leserkunde, Benutzerforschung, Bedarforschung, Interess등의 조사가 여러곳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進行되고 있다.

4) Hoffman, Walter. Die Lektüre der Frau. Ein Beitrag zur Leserkunde und zur Leserführung Mit Zahlreichen Graphischen und tabellarischen übersichten. Leipzig, Quell & Meyer, 1931(Leipziger Beiträge zur Grundlegung der praktischen Literaturpflege. H.L)

5) 여기에서 그중 주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Fröhner, Rolf Das Buch in der Gegenwart; eine empirische-Sozial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1961. 이것은 Bertelmann의 調査로 수 많은 도서관원이 이 調査

Güther Mager의 요구분석

G.Mayer는 일찌기 경제학에 수요공급 理論을 요구 조사(Ermittlung des Bedarfs)에 대응시켜 要求分析에 독자적 견해를 보여 주었다.

社會와 個人의 수요나 要求는 “어떤 구체적인 타이틀 또는 어떤 특정적인 圖書館 서어비스에 集中된 利用要請(Benutzung Sanforderung)이란 形式으로 圖書館에 接近한다.

利用要請은 또한 要求表明(Bedarfäußerung)이기도 하다.

要求表明은 일련의 要求要因(Bedarfsfaktoren) 및 그 相互作用에 依해 影響된다<sup>6)</sup>고 하였다.

특히 利用要請에 초점을 두었다.

要求要因이라는 것은 文獻과 情報에 의한 要求로 現存文獻의 運用法(Erschließung) 서어비스의 質 利用者の 구조, 住居地域 其他 圖書館의 분포상황등 利用要請에 影響되는 모든 조건이다<sup>7)</sup>.

要求는 이러한 要因에 規制되어 최후의 利用要請으로 表明된다.

Mayer는 이에 대해 別途로 論及한 것은 없으나 需要供給理論이라든가 要求表明이라고 하는 것이 Lionel Roy McColvin의 demand and Supply, expressed and unexpressed demand論의 理論과 恰似한 點이 있다<sup>8)</sup>.

利用者 要請이란 要件대 利用者가 明確한 目標을 인식하고 圖書館에서 要求를 충족하기 위하여 來館한 경우의 要求의 總體인 것이다.

이는 열람청구표의 分析만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利用者의 양케이트에 의할 수 밖에 없다.

Mayer는 利用者中 Sample에 의하여 양케이트 調査를 實施하여서 結果를 정리하여 利用要請의 斷面圖를 얻어내어 이것을 要求要因에 關連시켜 다각적으로 分析 利用要請의 구조적 기능적 特質을 追求하려고 하였다.

그의 생각으로는 이용요청의 主題部門別 배치와 장서구성과의 關係는 별달리 문제시 되어 있지 않으나 調査方法 如何에 따라서는 이 方法도 藏書構成의 評價에 導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認定된다.

以上 모든 見解를 總括하여 보면 장서구성을 利用者의 要求面에서 分析 評價하기 위한 方法에는 세가지 가능성이 發見된다.

첫째 Born方式에 보이는 利用과 장서의 主題部門別 關係를 회전율 또는 利用因數에 의해 測定하는 方法이다.

둘째 Wellard方式에 의한 것으로 장서를 利用과 關

心度의 양면으로 측정하여 보는 方法이다.

셋째 上記한 Mayer의 利用要請을 장서분석의 基準으로 하는 立場이다.

利用은 藏書構成 기타 圖書館 서어비스의 適正성에 의해 독서에 옮겨진 요구 또는 관심이므로 이 三者의 기준은 상호간에 利用 ≤ 利用要請 ≤ 關心이라는 關係가 이루어져 바른쪽으로 갈수록 영역이 확대되고 깊이 들어가는 것이 된다.

이것을 요구나 관심의 三계단으로 보는 것도 좋다.

에 參加하여 도서관이용 관심등을 分析하여 왔다.

近年에 圖書館員의 새로운 分野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of Beaujen, M. Neuland für Bibliothekare Buch und Bibliothek. 1969. ss. 342f.) fröere, Heing. Leser interessen-Bestandsaufbau Literaturpropaganda. Der Bibliothekar. Jg. 21. H.5(Mai 1967) ss. 498-500. 獨逸 zwickau市的 klubhau地域을 대상으로한 관심조사.

Fröhner, Rolf, Buch und Gesellschaft. vorträge von Rolf Fröhner, wolfgang Strauß und peter Meyer-Donn, 1968.

Meyer, Günther zur Methodik der Analyse von Benutzung sanforderungen. Ein Beitrag Zur Bibliothekarischen Bedarfsforschung. Zentralbolt für Bibliothekswesen, 1969,ss. 204~216. Neubauer, karl wilhelm. Die Bibliothek und ihre Benutzer.

Ein Bericht über Arbeitung zur Benetzerforschung, Mitteilungsalt Verband der Bibliothehen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Neve Folge. Jg. 20,Nr. 3(Jul. 1970) ss. 195~227. 새로운 利用者 연구문으로서 무엇보다도 포괄적이다. 英美계통 文獻에 자주 인용된다.

Klotzbücher, Alois Die Öffentliche Bibliothek und ihr publikum.

Über die Notwendigkeit bibliothekarischer Leserforschung Buch und Bibliothek. Jg. 22, Nr. 10(Okt. 1970) ss. 452~460. 1970년 도서관대회에서 발표된 前掲論文은 Hoffman의 理論을 낚은 이론이라고 지적하였다.

Kluth, Rolf. Grundrib der Bibliothekslehre uieshaden Otto Harrassowitz 1970.

Fuches, kunze 以來로 나온 도서관학 叢論으로 理論의 확립이 독창적인 도서관학본이다. 이 중 Benutzer kunde (ss. 31~41) Benutzungstruktur(ss. 94~97)등이 있다.

Hum, George, Informations bedarfs analyse in der Unternekmens praxis und Benutzer profile. Nachrichten für Dokumentation, Jg. 21, Nr. 2(April 1970) ss. 56~64.

Hauff, uolker, Informations bedurfnisse in der Gessellschafts wissenschalten.

Der Bedarf eines Bibliothekars. Ibid. Jg. 21, No.6 (De 2 1970) ss. 263~265.

Laux, W. Zur problematik der Benutzer gruppen einer Fachdokumentation Ibid. Jg. 22, Nr. 5(okt, 1971) ss. 186~190 Schwuchow, w. Bentazer analysen als Grundlage für die organisation von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Seinrichtungen, Ibid. Jg. 22, Nr. 6 (Deg. 1971) ss. 237~240 이같은 일련의 연구는 도큐멘테이션의 一分野로 취급되고 있다.

6) Meyer, Günther; 前掲書 ss. 205

7) 同書 ss. 205~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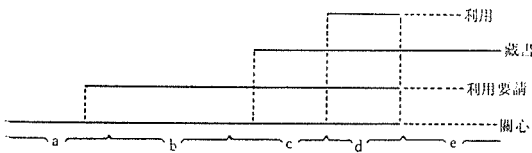
8) McColvin, Lionel. Roy. The theory of Book Selection for public libraries London, Graften. 1925.

장서구성의 分析評價 基準으로서는 어느 것이든지 각기 그 차원에서 고유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서구성과의 관계를 묻는다면 관심과 利用 要請은 于先 장서구성과 관계없이 獨立 存在하지만 利用은 이미 장서로서 비치되어 있는것에 대한 관심에 한하여 장서로서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上記 兩者를 藏書構成이라는 제로 걸러서 나온 결과가 利用인 것이다. 이러한 理論을 장서구성의 평가기준으로 使用할 경우, 회전문이라는 本來의 立場에 되돌아가서 장서중 活用되는 面과 活用되지 않는 面을 識別하는데 限定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前述한 3個 基準案과 장서구성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a는 독서대상이 아직 충분히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충분한 적극성이 없고 利用要請이란 形式으로 圖書館에 들어오지 않는 소극적인 관심부분이다.

b는 利用要請中 이에 대응할 장서가 없기때문에 利用에 옮겨지지 않는 부분이다.

c는 장서도 있고 利用要請이 여기에 行하여지면서도 카드의 불비 圖書館員의 助言의 不備, 또는 利用者의 카드 색출 미쓰등으로 利用에 이르지 못한 部分이다.

e는 그것에 대응한 관심이나 利用要請, 利用등이 모두 결핍되어 있는 藏書部分이다.

다시말하면 利用을 기준으로 하면서 장서를 분석 평가할때는 c, d, e가 되고 利用要請을 기준으로 할때는 b,c+d,e가 되고 관심을 기준으로 할때는 b,c+d,e가 각각 확인된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기준을 장서구성의 분석평가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여 보자.

利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이미 일반적인 평가기준에 확정되어있다.

그러나 이용요청과 관심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아직 결정적인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용요청은 앙케이트 方法에 의해 어떤 一定한 기간의 이용요청 책수를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고 각주제별로 소장책수와의 비율을 추구해서 이것으로 평가하는 일이 가능하다.

또 利用은 동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면 利用要請과 장서 이용의 三者關係를 추구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경우 이용요청이 이용에 옮겨지는 조건은 Wellard의 Accessibility에 해당하므로 三者의 비교에 의해 Accessibility의 영향도를 알게된다. 問題는 關心이다.

Waples-Tyler方式 Wellard方式 기타 어떤 方式으로도 독서관심을 구체적인 圖書數로 나타내기에는 어렵다.

그것은 관심을 한책의 도서에 대해 1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책의 도서에 나타난 여러가지 도수를 구분하여서 관심 1 또는 2를 계산해야만 하기때문이다.

단순히 한책의 도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라면 관심을 한 주제분야의 도서수로 表現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서전체에 대하여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동일한 조사를 실시함은 불가능하다.

뿐만아니라 소장 장서의 書名으로 관심도의 유무를 측정한다면 이미 조사의 대상 즉 관심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용요청이라는 좁은 범위 내에서만이 관심을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

만일 또 지금까지 출판이 되어있는 모든 도서의 서명에서 sample을 抽出한다 하여도(勿論 이런 方法 自體가 不可能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 유무를 조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준도서에 대한 관심을 해명할 뿐이다.

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뚜렷한 연구가 없고 다만 앞으로 좋은 연구결과가 발표될것을 기대할 뿐이다.

따라서 기대되는 主題에 대한 관심은 전연 파악할 수가 없다.

관심을 개별적 도서와의 관계로 보아서 그것을 집계해 관심있는 책수를 계산하는 方法에는 이같은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Wellard를 비롯한 종래의 관심조사는 개별적 도서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개별적 주제에 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여 온 것이다.

이 경우 各主題에 대한 관심을 집계하여 數字로 나타낼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類似한 주제항목을 늘리면 얼마든지 관심의 數値를 늘릴 수 있으며 애당초 그 수치의 단위가 책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Wellard는 도서를 數字上으로 1로 하는 것을 피하여 전체에 대한 백분율 方法에 의거하여 조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方法에도 難點은 있다. 各主題에 대한 질문항목의 상당수가 任意的인 것이어서 類似項目을 많이 내어서 백분율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도 아직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글을 읽은적이 없다. 관심조사를 할때 실제로 응답자가 실제로 책을 읽었는가의 여부를 기입하게 하여 各主題別로

독서관심과 실제 독서와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Waples등이 독서관심과 실제 독서와의 관계를 추구할 때 취한 방법이 이것이다. 勿論 동일주제에 대하여 여러책을 읽었어도 조사표에는 1로 체크되므로 關心도 여러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Waples나 Wellard 등은 이것을 “큰 관심” “일반적인 關心” “無關心” 등 3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비율의 수치는 회전율과 같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애당초 관심 그것이 엄밀히 수량화할 성질이 아니므로 이러한 정도로 우선 지표가 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이 조사중 실제 독서에는 도서관 利用 이외의 수단에 의한 독서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方法으로든지 그중에서 圖書館 利用部分을 빼내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집계の結果에서 各主題別로 圖書館利用 實際讀書 讀書關心 등의 비율이 나온다.

이러한 비율에 회전율을 계산하여서 사용한 利用冊數를 代入하면 藏書數 利用冊數 실제 독서책수 관심도의 책수등이 계산되는 것이다.

그중 장서수와 관심있는 책수와의 비율은 회전율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서 평균 회전율에 해당되는 평

(6面에서 繼續)

사·출판년·페이지 순으로 되며 다시 NLM의 분류번호로 계속된다.

Name section에는 잡지문헌이나 단행본도 일련의 Alphabet순으로 되어 있다. 공저자명은 두 사람까지 표시해 주고 외국어의 경우에는 원어(原語)를 사용한다.

맺는 말

MEDLARS가 의학도서관의 문헌검색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또한 의학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Net work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우리 나라에서도 이 system을 도입하여 우리의 의학계 발전에 도움을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나 사실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첫째는 경제적인 사정과 둘째는 이 system을 받아들일 태세가 전연 안되어 있을뿐더러 관계자들의 관심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가지 서광적인 것은 KORSTIC에서 MEDLARS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

준비율을 사용하여 관심에 대응할 장서수를 산출하면 독서관심을 기준으로한 바람직한 책수가 나오게 된다.

또한 출판물 접수와 장서수의 비율을 회전율방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主題別 출판물접수와 연간 납본책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그 수치를 各 主題 상호간에 比較 하는 것도 그해의 圖書選擇, 장서구성방침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예가 될 것이다.

結 語

이상 열거한 여러가지 分析 評價도 도서관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基礎자료의 정확성이 절대로 요청되고 있다. 적용방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기초 데이터가 모호할때 평가는 한낱 空念佛에 不遇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分野의 학문이 그렇듯이 기초통계자료의 명확성이 절대로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일선도서관에서의 장서구성 평가를 시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초통계자료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너무도 산만한 평가의 기술이 된듯하나 장서구성 평가방법의 전개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끝을 맺는다.

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KORSTIC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여 이 system을 도입한다면 다행한 일이겠으나 만일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의학분야의 관계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system의 도입을 위한 연구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 system의 도입을 위한 Master Plan은 의학도서관에 봉직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의해 이루어 지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Index Mechanization Project. Bull. of Med. Lib. Asso. 49 (1/pt. 2) 1~96, 1961.
2. Schiller, Hillel What is MEDLARS? Lib. J. p. 949~53, 1963
3. Rogers, Frank B. Stresses in Current Medical Bibliography. New Eng. J. of Med 267, 704~708, Oct. 4, 1962.

人事消息

3月 20日	朴 麟 錫	(現) 南原中學校
		(前) 南原女子高等學校
5月 7日	丁 海 晟	(現) 弘益大學校中央圖書館 司書主任
		(前) 어린이會館圖書室 主任